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GINEERING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경제혁신 3개년 계획
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5년 1월 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투자유치과 주소령 과장(044-203-4080), 장민재 사무관(044-203-4089)

2014년 외국인직접투자 사상 최고 실적 달성

- 2015년에는 사상 최초 200억불 진입 전망 -

1. 외국인 직접투자 개황

○ 2014년도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**신고 190.0억 불, 도착 115.2억 불**을 기록해 **사상 최고 실적 달성했다.**

* 기존 최고 실적 : (신고) '12년 162.9억불, (도착) '99년 110.3억불

- **(신고기준)** 전년 같은 기간(145.5억 불) 대비 30.6% 증가한 190.0억 불 기록.

- **(도착기준)** 전년 같은 기간(98.4억 불) 대비 17.1% 증가한 115.2억 불 기록.

* 신고기준(억불) : ('99) 155.5 → ('11) 136.7 → ('12) 162.9 → ('13) 145.5 → ('14) 190.0
* 도착기준(억불) : ('99) 110.3 → ('11) 66.4 → ('12) 107.0 → ('13) 98.4 → ('14) 115.2

< 그림 1 :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>



2. 부분별 주요 특징 (신고기준, 전년 동기 대비)

□ **(국가별)** 유럽연합(EU)(65.0억 불, 35.4%↑), 미국(36.1억 불, 2.4%↑), 싱가포르(16.7억 불, 288.0%↑), 중국(11.9억 불, 147.2%↑) 등 주요 투자국의 투자가 증가했으며, 일본(24.9억 불, 7.5%↓)의 투자는 감소했다.

○ **(중국)** 해외진출 장려정책, 한-중 간 경협증진 및 FTA 타결 기대효과 등으로 대(對)한국투자가 크게 증가했다.

- 복합리조트, 문화콘텐츠, 식품, 의류 등 새로운 투자모델이 부상하고 있으며, 특히 홍콩 · 싱가포르를 경유한 투자사례도 주목.

* 주요 투자 사례 : 제주 복합리조트(G사, 3억 불), 모바일게임(C사 5억 불), 건강보조식품(W사, 5백만 불), 유아용 의류(L사, 51백만 불)

○ 유럽연합(EU) 유럽경기침체로 투자여력이 좋지 않으나 부품소재, 석유화학 분야의 대형 인수합병(M&A)투자가 한국에 대한 투자 증가를 이끌었다.

- 관광·레저 등 일자리 창출형 서비스 및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.

* 주요 투자 사례 : 테마파크(L사, 85백만불), 석유화학(A사, 19.3억불), 전자소재(C사, 19.0억불)

○ **(미국)** 경기회복 조짐, 강(强)달러 등의 효과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소폭 증가했다.

- 비즈니스 서비스 중심의 인수합병(M&A)형 투자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소셜커머스(Social commerce) · 항공 · 물류 · 환경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투자도 유입됐다.

* 주요 투자 사례 : 소셜커머스(F사, 1.4억 불), 물류창고(L사, 4억 불), 구매대행(MRO)센터(B사, 1천만 불), 폐기물 고형연료(N사, 35백만 불)

○ **(일본)** 엔저현상, 소비침체 등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

- 다만, 부품소재분야의 그린필드형 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입

* 주요 투자 사례 : 탄소섬유(T사, 1.3억불), OLED용 터치센서(D사, 8천만 불), 자동차부품(D'사, 6천만 불), 고흡수성수지(S사, 5천만 불)

□ **[업종별]** 제조업(76.5억 불, 64.6%↑), 서비스업(111.9억 불, 13.6%↑) 모두 증가.

○ 제조업은 부품소재(46.1억불, 41.0%↑)가 60.3%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, 경영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큰 증가세를 보였다.

* 비즈니스 서비스업(억불) : ('10) 9.5 → ('11) 12.9 → ('12) 31.1 → ('13) 25.1 → ('14) 41.5

□ **[유형별]** 인수합병형(79.8억 불, 60.3%↑), 그린필드형(110.2억 불, 15.2%↑) 모두 증가

○ 공장 및 사업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, 최근 인수합병형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.

* 그린필드형(억불) : ('10) 110.6 → ('11) 117.0 → ('12) 125.4 → ('13) 95.7 → ('14) 110.2

** 인수합병형(억불) : ('10) 20.2 → ('11) 19.7 → ('12) 37.5 → ('13) 49.8 → ('14) 79.8

3. 사상최고 실적 달성 배경 및 의의

□ 달성 배경

○ **(내부적 요인)** 정상외교 등을 포함한 적극적 유치활동, 외촉법 개정 및 각종 규제개선, 연구개발(R&D) 센터와 본부(글로벌 헤드쿼터: headquarters) 유치를 위한 기준마련 등을 통해 국내 투자 및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했다.

-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(CEO) 간담회 개최 및 주요국 대상 한국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외투 친화정책을 홍보한 결과가 성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.

○ **(외부적 요인)** 미국 · 유럽연합(EU)에 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타결을 통해 확보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(FTA) 영토가 내수시장 부족이라는 외국인 투자유치한계 극복에 이바지했다.

- 이와 함께 게임·영화 등 문화콘텐츠, 소셜커머스 및 IT 서비스 업종 등에 대한 글로벌 기업 및 재무적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.

□ 의의

○ **(신뢰증대)** 유럽 경기둔화, 엔저 등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최고 실적 달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**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국내 세계적인 선도기업의 성과 및 발전가능성**에 대한 높은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.

○ **(산업경쟁력 강화)** 외국인 투자를 통해 부품소재 분야 등의 최신기술을 습득하고 산업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함으로써 **국내 산업의 밸류체인의 안정성 및 경쟁력 강화**를 이끌었다.

○ **(창조경제 실현)** 비즈니스 서비스·문화콘텐츠 분야의 ICT 기반 국내 스타트업(Start-up)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확대는 **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**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.

○ **(국내경제 활성화)** 국내 기업의 투자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 확대는 향후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**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**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

〈 그림 2 :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요인 〉

4.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전망 및 활동계획

□ 전망

○ 세계경기회복 전망 및 자유무역협정(FTA)허브 이점을 활용하여 **2015년도 외국인직접투자 목표를 200억불(신고기준)로 설정했다.**

□ 활동계획

○ **(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)** 자유무역협정(FTA) 타결을 통해 확보된 해외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활용하여 중국은 물론 미국·유럽연합(EU)·일본 등 주요 투자국 기업의 중국 또는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 집중하기로 했다.

○ **(유치활동)**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유망 분야를 선정하고, 국가별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강화할 계획이다.

* 1분기(중국, 중동 등) 2분기(유럽연합(EU), 홍콩, 싱가폴 등), 3분기(미국 등), 4분기(일본 등)

첨부 : '14년 외국인 직접투자 참고자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장민재 사무관(☎ 044-203-40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2014년 외국인직접투자 참고자료**

○ 주요 투자국



○ 최근 5년 산업별 투자

